

덴마크 오덴세항서 목포신항 활성화 모색

김지사, 해상풍력 전주기 산업생태계 구축 현장 시찰 아시아·태평양 해상풍력 허브 조성 '롤모델' 기대

김영록 전남지사가 글로벌 해상풍력 산업 중심지인 덴마크 오덴세항을 찾아 목포신항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김 지사는 23일(현지 시간) 덴마크 오덴세항을 방문, 오덴세 항만 사의 모튼 디더리히 사업개발 수석 매니저로부터 운영 현황을 듣고 베스타스 윈드 시스템스 A/S 터빈공장을 시찰했다.

오덴세항은 글로벌 해상풍력산업 중심지다. 덴마크에서 두 번째로 큰 섬인 핀섬 동북쪽에 위치한 덴마크 최대 항만이다. 150개가 넘는 해상풍력 기업이 입주해 1천800여종이 넘는 해상풍력 부품·기자재를 생산하고 있다. 유럽 해상풍력발전단지 유지·보수의 약 20%가 오덴세항에서 이뤄지고 있다.

김영록 지사는 "오덴세항에서 해상풍력의 연구개발-생산-조립-운송-설치-유지·보수에 이르는 전주기 산업 생태계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었다"며 "전남도는 오덴세항을 롤모델 삼아 목포신항을 아시아·태평양 해상풍력 허브로 조성할 계획으로 목포신항 활성화를 위해 A.P. 몰라-머스크가 큰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오덴세 항만에 위치한 세계 1위 터빈기업 베스타스 린도 공장을 시찰했다. 2014년부터 운영 중

인 린도 공장은 약 4만㎡ 규모로 여러 모델을 생산한 베스타스 해상풍력 터빈의 핵심이자 초도품 생산 시설이다. 김 지사는 "거대한 해상풍력 터빈이 생산·조립되는 과정을 직접 보니 베스타스 해상풍력 터빈이 생산될 목포신항 터빈공장이 더욱 기대가 된다"며



23일(현지시간) 덴마크 베스타스 린도 터빈공장을 방문한 김영록 전남지사(오른쪽 두번째)가 시설 현황 등을 청취한 뒤 관계자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목포신항 터빈공장이 계획대로 적기에 준공되도록 인허가, 투자 지원 등 행정적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해상풍력 공급망 밸류체인을 구축해 블루오션 산업을 육성, 서남권 주력산업인 조선업에 버금가는 규모의 신산업으로 부흥한다는 목표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22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베스타스 윈드 시스템스 A/S, A.P. 몰라-머스크 A/S, 목포시와 해상풍력 터빈공장 목포신항 설립을

위한 투자협약(MOA)을 했다.

협약에 따라 베스타스와 머스크는 공동으로 약 3천억원을 투자해 목포신항 항만 배후단지 20만㎡(약 6만평)에 연간 최대 150대 생산 가능 시설을 건립한다. 2027년부터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베스타스는 국내 해상풍력 연관 부품기업 등과 연구·개발 협력을 통해 부품 국산화 및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구축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김재정 기자

재해위험지역 발굴 안전 사각지대 최소화

도, 미등록 급경사지 1천개소 실태조사 집중 관리

전남도가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의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안전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미등록 급경사지 조사·관리에 나선다.

24일 전남도에 따르면 총출현 급경사지 관리를 위해 도민 생활권에 밀접한 미등록 위험 의심 지역 1천개소에 대해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한다.

실태조사를 통해 급경사지의 경사도·높이 등 규모, 비탈면 유형, 위험요인 등을 조사하고 위험도 평가를 실시해 관리 대상에 포함, 공간정보 등 데이터 베이스(DB)를 구축한다.

또한 위험도에 따라 사면 완화 등 연차별 정비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붕괴 위험지구로 지정 시 활용을 위한 도면 등 기초자료를 작성해 해당 시·

군에 배포해 지정·관리토록 할 계획이다.

8월부터는 주택 등 건축물에 인접한 인공비탈면도 급경사지 관리 기준이 현행 5m에서 3m 이상으로 강화되는 만큼 소규모 비탈면에 대해서도 급경사지 관리 대상으로 확대해 관리토록 할 예정이다.

송광면 전남도 자연재난과장은 "인명 피해 우려가 큰 급경사지를 확대 발굴해 안전관리를 강화, 사면 붕괴 등 위험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전남지역 급경사지 관리 대상은 1천988개소다. 이 가운데 415개소를 붕괴 위험지구로 별도 지정해 정비하고 있다. <김재정 기자>

"어린이날 광주시청 잔디광장서 만나요"

시, 다양한 공연·체험 행사

광주시는 24일 "제102회 어린이날을 맞아 오는 5월5일 오전 10시 시청 앞 잔디광장(우천 때 시청 시민홀)에서 어린이날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어린이들이 시청 잔디광장에서 각종 공연과 놀이 등을 맘껏 즐기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마련했다. 특히 올해는 사전 신청 없이 어린이와 부모 누구나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박선강 기자>

시장과 풍선비전탑 쌓기, 온가족 출라후프 경연대회 등이 진행되며 다양한 체험 부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먹거리 부스에서는 솜사탕, 팝콘을 무료로 나눠주고 행사에 참가한 어린이에게 문구 세트 등 다양한 선물을 제공할 계획이다.

오영걸 여성가족국장은 "어른들은 흠뻑 땀 흘려서 뛰놀던 어린 시절의 추억을 회상하고 어린이들은 시청에서 마음껏 뛰어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많은 가족이 참여해 소중한 추억을 만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

광주시, 특이 민원 대응 모의훈련

광주시는 24일 시청 민원실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특이민원으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민원 환경 조성을 위해 '특이 민원 대응 모의 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모의훈련은 광주서부경찰서 상무지구대와 합동으로 실시했으며 비상대응반을 편성해 ▲민원인 폭언 발생 ▲폭언 중단 요청 및 진정 유도 ▲피해 공무원 보호 및 방문 민원인 대피 ▲사전 고지 후 녹음·촬영 ▲경찰서 인계 등 실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광주시는 또 특이 민원 대응을 위해 민원 담당자들의 휴대용 보호 장비 대여 운영, 기관 차원의 법적 대응 지원, 피해 공무원 심리상담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박선강 기자>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전국 확대

광주시, 24시간 돌봄에 개별·그룹형 주간활동 서비스 추가

광주시의 시범 사업인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가 6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24시간 돌봄 외에도 개별·그룹형의 주간활동 서비스가 추가된다.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광주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사업'을 확대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를 오는 6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이를 위해 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오는 30일까지 서비스 이용자 신청을 접수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자해·타해 등 도전 행동으로 인

해 기존 복지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장애의 정도가 극심한 발달장애인에게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통합돌봄 서비스는 24시간 개별, 주간 개별, 주간 그룹형 등 3개 유형으로 나눠 서비스한다.

이 서비스는 광주시가 2021년 전국 최초로 시작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사업'이 2022년 국정과제로 선정되고 같은 해 발달장애인들이 개정돼 올해 6월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게 됐다.

서비스 이용 대상은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된 지적·자폐성 장애인으

로 도전행동의 심각성 여부, 일상생활 능력, 의사소통 능력, 지원 필요도 등을 종합 평가해 선정, 유형별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서비스 시행에 앞서 지자체 공무원, 시설·법인 등 관계기관, 발달장애인 부모 등을 대상으로 오는 30일 오후 2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전라권역(광주·전남·전북) 설명회를 연다.

남미선 장애인복지과장은 "기존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통합돌봄 서비스를 지원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고 가족의 돌봄 부담도 완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

전남도, '식품안전관리' 2년 연속 우수

전남도는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2024년 식품안전관리 업무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식품안전관리 평가는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식품안전관리 운영 실적을 평가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고 있다. 이번 평가는 전국 17개 시·도와 22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전남도는 ▲식품위생 감시 인력, 현장보고장비 활용 등 식품안전관리 기반 ▲지도점검, 민원처리 등 기초위생

관리 ▲수거검사, 이행률 등 정부 주요 정책 등 14개 평가 항목 전 분야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

또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전국 16개 시·군·구 중 여수시·순천시·구례군·고흥군·영광군이 포함돼 식품안전 관리 분야에서 전남도가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

나소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전남도와 27개 시·군이 모두 함께 노력해 이룬 성과"라며 "도민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식품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정 기자>

건강과 행복! 우리 병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굿모닝서울안과
GOOD MORNING SEOUL EYE CENTER

도안/백내장
라식/라섹
안검하수/쌍꺼풀
눈물길수술

2층 수술센터 / 3층 외래진료센터
- 안구건조증 클리닉 운영

광주 서구 무진대로 965
태영내과21빌딩·메디칼센터 2, 3층
☎ 062.430.2020

생명존중을 실천하는
에덴병원

진료내용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내과	외과
영상의학과	건강검진센터

대표전화 : 062-260-3000
광주광역시 북구 면양로 170번길 10 (두암동)

공공의료·복지를 선도하는 최고의 파트너

**보훈공단
광주보훈병원**

병원장 이삼용

광산구 첨단월봉로 99
대표전화 062.602-6114
응급실 062.602-6119

www.ct119.co.kr

믿음을 주는 참 좋은 병원
광주시티병원
시티재활의학과요양병원

광주시티병원 062.460-7000
응급실 062.460-7119